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지구기원 I 태양위기

(地球紀元 I 太陽危機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중 과

이 인 경

2020년 2월



지구기원 I 태양위기

(地球紀元 I 太陽危機 - 번역논문)

지도교수 송 현 선

이 인 경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이인경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趙心植



위 원

余中豪



위 원

宋致堉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9년 12월



The Era of the Earth I Sun Crisis

In-Kyeo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Hyun-Su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9.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Chines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차례

프롤로그. 백지 한 장- 1

제1장. 심리 모형- 14

제2장. K2급 문명, 적도 사업, 생명의 성- 26

제3장. 리웨이 I - 47

백지 한 장

“우리 인류 문명은 온갖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는 산을 뚫을 수도 있고,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들 수도 있고, 비도 내리게 할 수 있지. 그만큼 위대해 보여. 그런데 표상만 그렇지. 사실 인간은 연약해. 그냥 정말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리치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자오화성에게 천천히 말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자오화성은 선임인 리치를 줄곧 존경해 왔다.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연맹중앙과 학원 산하의 항성물리연구소에 임시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리치를 처음 만났다. 자오화성은 항성 물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리치를 항상 동경했다.

“그렇지도 모르죠.” 자오화성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질 거예요.”

리치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반짝였다. 슬픔 같기도 하고 고통 같기도 했다.

리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고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라 유리 창문을 통해 변화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눈부시게 빛나는 불빛들이 하늘에 떠 있는 달도 가려버린 듯했다. 거리에는 온통 만연한 불빛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수백 미터 높이의 빌딩 안이지만 거리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벌써 밤 11시가 다 되었지만, 이 도시가 잠들 시간은 아직 멀어 보였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명이야.” 리치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품에 안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렸다. 그는 취해서 잠꼬대하는 듯이 말했다. “이게 바로 강대하고 변화한 우리의 문명이라고...”

“형님,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모셔다드릴게요.” 자오화성이 리치 옆으로 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리치는 고개를 저었다. “화성아, 조금만 더 이따가 가자. 오늘 네게 할 말이 있

어서 그래.

우리 인류 문명은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켰어. 우리는 순진하게 스스로 못하는 게 없다고 자부하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를 우리는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지구상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은 높이가 9,000m가 좀 안 돼. 지구상에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깊이가 대략 10,000m 정도야. 잠수정으로 마리아나 해구를 잠수한 것 가지고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전력을 다해 지구에 11,000m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선포했지. 그런데 말이야. 지구의 반경은 6,371km, 즉 6,371,000m야. 우리는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들이고도 지구의 600분의 1밖에 못 들어간 거야.

지진의 진원 깊이가 보통 100,000m 이내인데,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지진도 지구에서는 단지 재채기 한 번 한 정도에 불과해. 아니, 재채기라고도 할 수 없지. 기껏해야 지구가 살짝 꿈틀거렸을 뿐인데, 그때마다 수십만, 수백만 인구가 사망하잖아.”

리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리치가 말한 것들은 자오화성도 다 알고 있는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자오화성은 좀 불쾌하게 느껴졌다. 이는 마치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던 사람이 누군가로 인해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눈앞에서 드러났을 때 드는 감정과 같았다.

“인류는 항상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구가 구태여 인류의 보호가 필요할까? 인류가 저장해 둔 핵폭탄 전부를 동시에 터뜨린다고 해도, 파괴되는 건 지구의 겉껍데기일 뿐이야. 핵폭탄으로는 지하 100,000m까지도 그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지. 결국 인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이야. 인류가 갖은 애를 다 써서 지구를 파괴하려 한다면 또 어떨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겠어?”

우리의 문명, 우리가 세운 도시와 건축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 우리의 문화와 유산, 우리의 과학기술 등등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게 지구한테는 그저 지구에 붙어사는 아주 작은 세균 정도에 불과해. 만약 지구에게 의식이 있어서, 우리 인류 문명을 파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재채기 한 번이면 끝나. 재채기 한 번이면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리치가 말했다.

“우리 인류 문명이 미미한 수준인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겐 무한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자오화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치는 화성의 말을 들은 채 만 체하며 자신의 얘기를 계속했다. “지구도 별거 없어. 태양계에 비하면 지구가 별거야? 은하계에 비하면 태양은 또 무슨 대수야? 안드로메다 은하, 처녀자리 초은하단,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리치의 말속에 깊은 슬픔이 들어 있었다.

“그만 가자.” 리치가 말했다.

자오화성은 술에 취한 리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내려다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리치 집 층수에 도착했을 때, 리치는 돌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눈빛으로 자오화성을 쳐다봤다.

자오화성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리치에게 물었다. “형님, 왜 그러세요?”

리치는 그저 혼자 웃기만 했다. “안녕”이라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곧장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분명 자오화성을 집에 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자오화성은 좀 어리둥절했다. 리치가 오늘 좀 이상해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젓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자오화성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도통 잠이 들지 않았다.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게 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새벽 두세 시쯤이 되어서야 자오화성은 어렴풋이 잠이 들었지만 네다섯 시간 만에 다시 눈을 떴다.

자오화성은 추워서 깼다.

우습게도 지금은 팔월, 피약별이 내리쬐는 시기이다. 태양은 다섯 시가 채 되기도 전에 떠오른다. 자신의 빛과 열을 이 작은 행성에 뿜어내면, 대기는 점점 따뜻해지다가 이내 뜨거워진다.

자오화성은 외투를 걸치고 창가로 갔다.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커다란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었지만, 어딘가 좀 어두워 보였다. 하늘도 평소처럼 맑은 쪽 빛이 아니라 파란색에 약간 어두운 색채가 섞여서 몹시 답답해 보였다.

자오화성은 항성물리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 태양이기 때문에, 자오화성은 자연스럽게 태양의 구조, 물질, 진화 등과 같이 태양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한다. 오늘의 태양은 뭔가 좀 달라 보였지만, 자신의 전문 지식을 꺼내 원인을 분석해 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라며 중얼거릴 뿐이었다. 좀 더 자려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당겨 덮었다.

그때 다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깼다. 자오화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났다. 문을 열어보니, 검은색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자신의 신분증을 자오화성에게 꺼내 보였다. “저는 연맹안 전부 1급 수사관 멩취라고 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냉랭하게 말했다. “협조해 주셔야 할 일이 있으니 함께 가 주셔야겠습니다.”

“연안부에서 저를요?” 자오화성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 한 번 또래 여자아이의 막대사탕을 빼앗았던 것 말고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죠?”

“저와 함께 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멩취라는 중년의 남성은 여전히 냉랭한 말투로 말했다.

30분 후 자오화성은 어느 넓은 회의실에 도착했다.

뜻밖에도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동료도 있었고, 상사도 있었다. 일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매우 낯이 익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이었음을 곧 알아차렸다.

자오화성은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다. 웬지 모르게 회의실 안 사람들 모두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 웃음을 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오화성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이는 몇몇 거물급 인사를 포함한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자오화성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건 리치 소장님의 유일한 유품인데, 자오화성 씨에게 남긴 겁니다.” 멩취는 작은 금고 하나를 자오화성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백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자오화성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유품이요? 리치 소장님이 저한테 유품을 남겼다고 하신 건가요?”

“네.” 멩취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치 소장님은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살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자살 현장에서 이 금고가 발견됐는데, 금고 안에 이 백지가 쪽지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이 백지를 자오화성에게 전해주세요. 화성이가 모든 의문을 풀어줄 거예요.’

자오화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 중에 텔레비전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어른신이 탁자를 두드렸다. 그의 위엄 있는 눈빛이 자오화성을 향했다. “그럼 이제 태양이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지 설명해 주겠어요?”

그 어른신은 인류연맹의 최고 지도자였다. 그의 주변에 앉아 있는 몇몇 사람들도 모두 인류연맹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명 인사들이었다. 조금 전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자오화성은 뭔가 큰일이 발생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졌다. 리치의 죽음, 자살, 자살 전 자신에게 남긴 백지 한 장, 인류연맹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최고위급 회의,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까지. “태양이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오화성은 자신의 뺨을 몇 번 세계 때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연맹의 수장이 멩쥬에게 사인을 보내자, 멩쥬가 답했다. “오늘 새벽 3시 즈음 위기예방부는 서반구에 배치된 태양 관측 망원경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구 궤도에 배치된 태양 관측 위성 15대와 라그랑주 점과 태양 궤도에 배치된 관측 위성에서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태양 복사 강도가 몇 분 만에 10%나 떨어졌으며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예방부는 즉각 이 정보를 연맹 수장 비서실에 알렸습니다. 또 항성물리 연구소 리치 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 연안부를 투입해 리치 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습니다.

리치 소장은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화재 흔적이 발견됐는데, 의아한 점은 리치 소장의 침실에서만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장은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금고만 멀쩡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리치 소장이 자오화성 씨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부 정보에 따르면, 어제저녁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리치 소장이 자오화성 씨와 세기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리치 소장의 이전 연구 기록을 조사한 결과, 리치 소장은 적어도 1년 전부터 태양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치 소장의 사망 시각입니다. 부검 결과, 정확히 태양의 급변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보아, 리치 소장은 태양에 발생할 변화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발생 원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 자오화성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오화성 씨에게 백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오화성 씨가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 줄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멍췌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침착함을 유지했다. 목소리도 줄곧 같은 톤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자오화성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 그럴 리가 없어. 태양 복사 수준이 갑자기 어떻게 10%나 떨어질 수가 있난 말이야. 말도 안 돼. 만약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지면 태양은 자신의 거대한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 그럼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고 밀도는 높아지게 돼. 그렇게 되면 중심 온도가 올라가서 복사 수준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야. 이게 동태적 균형의 과정인 거고, 이게 기본 상식인 건데…” 자오화성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연맹의 수장이 다시 또 멍췌에게 사인을 보내자, 멍췌는 자오화성에게 자료를 건넸다. 태양 복사 수준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와 각종 관측 위성의 기초적인 관측 데이터, 그리고 몇 가지 기초적인 분석 결과였다. 자오화성도 자주 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내용을 이해했다.

모든 탐측 설비가 명확하게 하나의 결론을 나타냈다. 즉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졌지만, 태양의 질량과 부피, 밀도 모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태양 복사 수준이 10% 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연맹의 수장은 느끼고 무게 실린 말투로 말했다. “지구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빙하기에 진입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적도는 온대가 되고, 온대는 한대가 될 거예요. 심지어 남극의 빙하가 남아메리카까지 닿게 될 거고, 그린란드 빙하가 아시아 대륙까지 뻗게 되겠죠. 지구 대부분의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식량 생산이 대폭 감소해 수억 명이 아사하고 말 거예요. 만약 태양 복사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우리 인류 문명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겠죠.

오늘은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진 첫 번째 날이에요. 대기의 순환과 해양의 보온 작용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재난을 잠깐은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기껏해야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느낄 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태양 복사 수준을 다시 올리지 못한다면, 기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지경까지 말이죠. 그러니 자오화성 씨가 알려 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오화성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제저녁, 리치 소장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한 자도 빠짐없이 말해주겠어요?”

“그게…” 자오화성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다소 괴로운 듯이 말을 이어갔다. “금요일인 어제, 퇴근 후 리치 소장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견문을 넓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세기 빌딩 스카이라운지로 갔습니다. 앉아서 식사하기 시작했고 술도 마셨습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소장님께서 인류 문명의 미개함으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한 서기가 옆에서 자오화성의 말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다. 자오화성이 기억을 되짚으며 말하는 동안, 서기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줄곧 조용히 기록만 했다. 자오화성이 말을 끝내자, 서기는 기록물을 검토한 후 질문을 했다. “리치 소장님과 연구소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서 리치 소장이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가 좀 서늘하네’라고 말했나요?”

자오화성이 기억을 되짚어 보더니 말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했습니다.”

“리치 소장이 자오화성 씨를 데리고 세기 빌딩으로 가는 도중에 차가 막히는 상황을 몇 번이나 불평하던가요?”

“세 번입니다.” 자오화성은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대답했다.

자오화성은 기억력이 매우 좋았다. 대학 시절에는 암기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자오화성은 어제저녁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해 낼 수 있었다.

“리치 소장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오화성 씨에게 ‘들어 왔다 가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게 확실한가요?”

“네.” 자오화성이 답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전부 기록한 겁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기는 기록물을 자오화성에게 건넸다.

자오화성은 기록물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고는 말했다. “빠진 내용 없습니다.”

“만약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명짚에게 얘기하도록 해요. 명짚, 당분간 자네가 자오화성 씨를 맡아 주게.” 연맹의 수장이 말했다.

“네.” 명짚는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그때, 회의실 입구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금테 안경을 쓴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허락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종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A4용지일 뿐, 어떠한 기술이나 약물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학 전문가가 종이의 섬유 분포, 압인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3개월 전 생산되었고, 일반 사무용품점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페이지라는 임업 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종이의 원자재는 포플러이며, 생장 나이는 3년 152일로 당시 함께 생산된 종이가 총 6t입니다. 그중 5t은 이미 시장에 유입되었으며, 나머지 1t은 저희 쪽에서 수거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5t 중 4.5t도 이미 추적을 마쳐 회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0.5t은 구매자 거처 및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원을 투입해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생산된 종이와 접촉한 자는 3,070명으로, 전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심리 전문가팀을 꾸려 리치 소장에 대한 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리치 소장이 남긴 모든 연구 자료와 그간 접촉했던 모든 물건을 조사해 보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리치 소장이 자살한 원인을 알아야겠네. 리치 소장이 어째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는지, 어째서 재난이 발생하기 직전에 자살을 선택했는지, 어째서 자오화성 씨에게 백지 한장을 남기고 갔는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리치 소장이 어떻게 이 재난을 예측했는지, 이 시각 태양 변화에 대해 따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체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한 가지 더, 당장 이 분야와 관련된 연맹 소속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즉시 태양 변화를 분석해 보게.”

연맹의 수장은 차분한 어조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명령했다. 말을 마치고 난 후 수장은 다소 피곤한 듯이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자오화성을 쳐다봤다. “화성 씨, 오 늘부터 인류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군요.”

“우리 인류 문명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소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인류 문명은 아직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성 착륙조차 이루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도 인류 문명의 미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문명의 힘으로 태양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난관을 극복해서 이번 위기를 벗어나야만 인류 문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실패한다면 우린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다행히 우리의 과학 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전시 비상 단계를 발령합니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가동해 이번 위기에 대응할 것입니다. 과학자, 엔지니어, 정치인, 근로자, 사업가,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칩니다. 자오화성 씨와 명쥬는 나 좀 봅시다.”

사람들은 잇달아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큰 회의장에 자오화성과 명쥬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자오화성 씨에 관한 자료를 좀 봤어요.” 연맹의 수장이 자오화성을 쳐다봤다. “어릴 때부터 항성물리연구소에 입사하기까지 줄곧 남다른 천부적 재능을 보여 왔더군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자오화성은 조금 전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홀로 남아서 수장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 그제야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자신 앞에 있는 이 사

람은 인류연맹의 최고 지도자로 결코 자오화성이 마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수장의 칭찬 앞에서 자오화성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주저했다.

“너무 겸손해하지 않아도 돼요. 자오화성 씨는 분명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수장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전체 인류 문명에서 보면, 자오화성 씨 처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많아요. 보통 사람에 속하죠. 결코 천재라고 할 만한 능력을 보인 건 아니에요.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더 좁혀서 이 항성물리연구소에서조차 자오화성 씨의 자질을 최고라고 하진 못해요. 기껏해야 우수한 정도지요.”

“자오화성 씨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화성 씨, 리치 소장이 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택했는지, 왜 이 엄청난 임무를 본인에게 맡겼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오화성은 잠시 생각해 봤지만 결국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분명 그러했기 때문이다. 비록 수장이 한 말은 가혹했고 화성의 자존심 따윈 살피주지 않았지만 전부 사실이기 때문이다.

“후…” 수장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려있는 국기를 바라봤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든든해 보이는 뒷모습만 보인 채 말했다.

“화성 씨, 사실 난 이번 위기를 이겨 낼 자신이 없어요.” 수장이 말했다. “태양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백만 배 이상이에요. 작디작은 지구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데, 하물며 태양에 맞서는 건 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화성 씨도 알다시피, 이런 말을 대중 앞에서 할 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실낱같이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그쪽으로 집중시켜주는 정도지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전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난 거의 절망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바로 다음 소식을 듣게 되었죠. 리치 소장이 이러한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고, 유일한 유품을 화성 씨에게 남기고 가면서 화성 씨가 우리의 의문을 풀어줄 거라고 했다더군요. 리치 소장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리치 소장이 화성 씨보고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 달라고 했으니, 화성 씨는 반드시 그걸 해내야 해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 인류 문명의 과학 기술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1%라면, 리치 소장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적어도 20%는

돼요.”

“그러니 화성 씨, 지금 난 20%의 희망을 당신에게 걸려고 해요.” 수장은 몸을 돌려 엄숙한 눈빛으로 자오화성을 쳐다봤다. “지금 화성 씨도 의문이 많을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거란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리치 소장이 이렇게 된 건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리치 소장이 당신을 믿으니, 나 역시 당신을 믿을 거요.”

“필요한 건 모든 지원해 줄게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리치 소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자오화성 씨가 달에 간다고 해도 내가 보내주지요.” 수장이 다가와 자오화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 명짚에게 얘기해요. 명짚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럼 이만하죠. 화성 씨, 인류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거 명심해요.”

수장이 자리를 떠나자 회의장에는 자오화성과 명짚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자오화성은 의자에 기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왜 저인 거예요? 왜 하필 저냐고요. 리치 형님, 마지막 순간에 왜 절 선택하신 겁니까?”

“앞으로 서로 소통하기 편하도록 자오화성 씨를 1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명짚은 냉랭하게 말했다. “저를 2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오화성이 헛웃음을 지었다. “전 그냥 이름으로 부를게요.”

“그러시죠.” 명짚은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1호 님, 다음 지시 사항을 내려주십시오.”

“우선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자오화성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회의장 밖으로 걸어갔다.

차는 여전히 명짚이 운전했고 자오화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자오화성은 진작부터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고 가는 인파, 길게 꼬리를 잇는 차량, 높게 솟은 빌딩, 심지어 하늘에 걸려있는 다소 어두운 태양도 다 거짓인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말이 자오화성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태양은 성간 기체로부터 최초 탄생한 이후 40억 년이 넘도록 안정적으로 에너지

를 방출해 왔다. 이 시간 척도에 비하면 인류 문명에 기록된 5천 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에 격렬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류 문명도 발전을 거듭해 왔고 기본적인 성간 탐측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태양의 격변이 발생한 지 6시간 만에 위기대응부, 과학연구부, 심리개입부 등을 종합한 기관이 만들어졌다. 이 기관의 명칭은 태양위기협력대응센터로, 인류연맹의 수장이 직접 센터장을 맡았다. 앞으로 타 부서 모두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태양위기협력대응센터의 임무는 두 가지. 그 첫 번째 임무는 태양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내적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임무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류 문명을 계승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리치와 자오화성 사이에 있었던 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급 과학자와 인류연맹의 고위층 몇 사람뿐이었다. 연맹의 수장이 “난 최대한의 희망을 당신에게 걸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을 지원해 줄 거예요. 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라고 했던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선 자오화성도 이해할 수 있었다.

주말의 첫날이 이런 기이한 상황 속에서 지나갔다. 자오화성은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먹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멍췌는 자오화성 옆에서 동상처럼 서 있었다.

하루 만에 자오화성은 얼굴이 수척해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자오화성은 한숨을 내쉬며, 본인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멍췌 씨, 게스트 룸에 가서 쉬세요.”

멍췌를 보내고 자오화성도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자오화성은 여전히 불안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자오화성은 계속 수많은 사람이 울부짖고,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대지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는 꿈을 꿨다. 어떨 때는 리치가 꿈에 나오기도 했다. 리치가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에게 했던 “안녕”이라는 마지막 한 마디가 꿈에 나왔다.

자오화성은 오늘부터 자신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이 변화는 리치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신을 부른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유일한 유품을 자신에게 남겼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날이 점점 밝아왔다. 피곤이 극에 달했지만 자오화성은 여전히 새벽에 잠에서 깬다.

오늘은 태양 위기가 발생한 지 둘째 날이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의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낮아졌다. 태양도 더 어두워졌다. 자오화성은 어쩔 수 없이 긴 와이셔츠와 긴 바지를 꺼냈다. 한여름인데 춘추복을 입어야 했다.

기온은 여전히 떨어지고, 떨어지는 기온을 막을 수 없었다.

비록 물의 비열이 크고,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록 지구에는 아주 두꺼운 대기층이 지구의 열을 보호해 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어떤 사건의 뿌리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나 마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건 사건의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이번 태양 위기에 서 태양 복사 수준의 하락이 바로 이번 사건의 뿌리에 해당한다.

제1장 심리 모형

다소 한기를 띠는 아침 바람에 자오화성은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서 자동차 조수석에 올라탔다. 오전에 또 고위급 회의가 잡혀 있었다. 연맹의 수장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각 분야의 책임자, 관련 분야의 과학자도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 사회는 어떻게 이번 태양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신분이 특수한 연유로 일반 연구원 신분인 자오화성도 회의에 초청받았다.

자오화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변화한 도시는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였다. 기온은 기이하게 변했지만, 사람들의 일상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이다. 자오화성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평소와 같이 분주했다. 거리에는 변함없이 먹거리를 파는 푸드 트럭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많은 직장인도 늘 그랬듯 뻑뻑이 모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각 태양은 다소 어두웠지만, 태양의 변화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오화성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전 인류 사회가 행동이 느리고 감각이 둔한 커다란 짐승처럼 보였다. 그 짐승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항상 느렸다. 그래서 어떤 변화로 인해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걸 느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류는 과학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여전히 미개하고 둔감하게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자오화성은 회의실 입구까지 명취의 안내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가 시작됐다. “우선 과연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다.

과연부 대표는 명망 높은 항성 물리학자이다. 원래 과연부 대표는 리치 소장이었지만 리치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최근의 관측 및 연구에서는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지게 된 어떠한 원인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과연부 대표가 말했다. “저희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복사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또다시 0.003%가량 떨어졌습니다. 어느 선까지 떨어질지 그리고 얼마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향후 태양 복사 수준이 원래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란 뭘 말하는 거지요?” 연맹의 수장이 물었다.

과연부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태양이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태양이 소멸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상황이 발생 가능한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의 발생 가능 확률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혀 예측되지 않습니다.” 과연부 대표가 대답했다. “태양 소멸 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태양이 소멸한다면 지구는 명왕성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도는 영하 200도 이하까지 떨어져 액체는 모두 고체로 응고될 것입니다. 대기층을 구성하는 모든 기체가 극도의 저온으로 인해 응고되어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구는 모든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여러 성간 복사 및 소행성이 제멋대로 지구를 폭격하게 되고, 모든 생명이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맹의 수장이 물었다. “그럼 과연부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왔죠?”

“만약 가능하다면...” 과연부 대표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열대지방에 대량의 방공호를 건설하는 겁니다. 고위도 및 온대 지방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열대 부근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해양과 대기의 보온 작용은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대 및 온대 지방은 머지않아 인류가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운이 좋아서, 태양 복사 수준이 더는 떨어지지 않는다면 열대 지방은 인류 생존에 그나마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신에너지 연구 개발에 최대한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제어 핵융합 부문에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일부 인류 문명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양 관측 계획을 추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최신식 태양 탐사기를 최대한 많이 태양으로 발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 관측 계획도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태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우리가 태양을 구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맹 수장의 눈빛이 공업부 대표와 사회부 대표에게 향했다. “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업부 대표가 말했다. “우리 인류 문명이 갖춘 산업 기반을 이용해 이른 시일 내에 열대 부근에 대량의 방공호를 건설하고, 모든 산업 자원을 과연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당장 급하지 않은 다른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단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회부 대표가 말했다. “그 문제는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위기 상황을 당분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건의합니다. 너무 성급한 진상 공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는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부 대표가 말을 끼어들었다. “만약 배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비축해 둔 식량으로 전 인류가 3년간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3년 후에는 식량 고갈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부의 자원 일부를 농업 분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강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식량 종자와 대규모 수경 재배 및 하우스 재배 기술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 내야 합니다.”

과연부 대표가 현재 인류 문명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여실히 밝히고 요청 사항을 제안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각 관련 부처에서 상세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회의는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이곳에서 자오화성은 발언권이 없었다. 자오화성이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신분이 특수하기 때문이었다.

끊임없는 발언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오화성은 점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오화성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리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리치가 죽기 전 잘 가라고 했던 말과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남긴 백지 한 장이 떠올랐다.

그 평범했던 백지 한 장이 갑자기 어떤 신기한 마력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던 하얀 종이 위에 리치가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리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자오화성은 자신이 특수한 신분인 것도 알고 자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대체 어디가 특수하고 어디가 중요한지 알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그때 자오화성 옆에 앉아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오화성에게 인사를 건넸다. 자오화성은 상념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는 이 여성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리웨이라고 해요. 리치 오빠의 동생이에요.” 젊은 여성은 “저는 지금 연맹 중앙 과학원 산하의 광학 연구소 고에너지 레이저 연구실에 있어요. 오빠한테서 자오화성 씨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오빠는 자오화성 씨가 아주 성실하고 우수한 청년이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리웨이는 많아 봐야 20대 초반처럼 보였다. 날씬한 체형에 세련된 외모, 거기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다만 울어서 눈이 좀 부었는데 화장을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다.

리웨이의 말을 들으니 자오화성은 마음이 아팠다.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잘 챙겨주셨고요.”

“우리 오빠가 죽기 전날 자오화성 씨랑 같이 술을 마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리웨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자오화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형님에게 혼이 나더라도 형님을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자오화성 씨를 탓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잠시 후 리웨이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만 의문이 드는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우리 오빠가 유일한 유품을 자오화성 씨에게 남겼는데 그게 백지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자오화성 씨가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고 했고요. 맞나요?” 리웨이가 물었다.

자오화성은 다소 의아해했다. 뜻밖에도 리웨이가 이 일급 기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리치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금방 이해가 되었다.

자오화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확인해 줬다.

리웨이는 자오화성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무언가 다른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전

오빠를 이해해요. 오빠는 계획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오빠는 의미 없는 일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믿어요.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번 태양 위기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마지막 희망이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달려있을 것 같아요.”

리웨이의 말을 듣고 자오화성은 다소 난처해졌다. “저도 인류를 구하는 데 제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태까지도 전 제가 대체 어디가 특별한지, 형님이 왜 마지막 유품을 제게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리웨이는 “오빠가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자오화성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예요.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오화성은 메모지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자오화성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오늘 이 회의는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회의였다. 오늘은 단지 총괄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회의였을 뿐 구체적 사항까지는 다루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각 관련 부처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공동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의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걸 자오화성도 잘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리치의 추도식이 있었다. 그곳에서 자오화성은 리웨이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 없이 서로 가볍게 목례만 나눴다.

빈소에서 연맹의 깃발을 두르고 생화로 덮인 리치의 시신과 함께 흑백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자오화성은 마음속으로 웬지 모르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인류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지금 이 시각 수많은 사람이 이 변화 때문에 바빠 뛰어다녔다. 하지만 자오화성은 항상 이러한 분주함으로부터 홀로 동떨어져 있다. 잠시 망연자실하던 자오화성은 리치의 시신을 향해 허리 굽혀 인사한 후 빈소를 나왔다.

자오화성과 명취는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자오화성이 명취에게 말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다른 곳에 좀 가 있으면 안 될까요?”

멍췌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왜죠?” 자오화성은 어리둥절해했다. “나를 감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멍췌가 말했다. “전 1호 님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옆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1호님도 리치 소장처럼 영문도 모르게 죽는다면 그 뒷일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오화성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러고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멍췌도 함께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혼자 있고 싶으시면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있겠다고요?”

“네.” 멍췌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베란다로 향했다. 그 후 더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오화성은 베란다로 다가가 커튼을 걸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자오화성은 깜짝 놀라 곧바로 고개를 들어 천장도 보고 뒤돌아보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멍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멍췌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멍췌는 분명 여전히 자신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자오화성도 알고 있다. 멍췌가 대체 어떻게 모습을 감췌는지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다. 연맹 안전부의 1급 수사관이자 연맹 수장이 것처럼 중용하는 인물이라면 분명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오화성은 더는 멍췌를 찾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사과 주스를 따랐지만 마시진 않았다. 소파에 누워 눈앞에 칙칙같이 어두운 티브이를 낮이 빠진 채 멍하니 바라봤다.

자오화성은 리치와 함께했던 지난 일 하나하나를, 그리고 리치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세하게 떠올리며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생각해 봤다. 한참을 생각해 봤지만 안타깝게도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봤다.

“일단 리치 소장이 왜 나를 택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백지 한 장을 남겼을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어째서 이 모든 걸 알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리치 소장이 이 모든 걸 은폐할 이유가 없어. 결국 전 인류의 생사

존망과 직결된 엄청난 일이잖아. 리치 소장처럼 정상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대로라면 이 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인류연맹에 알렸겠지.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리치 소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리치 소장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어떤 미지의 세력 때문에 알리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은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백지를 통해서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말이 돼. 리치 소장이 마지막에 날 선택한 건 어쩌면 이 암시를 풀 열쇠가 나한테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 열쇠가 도대체 뭘까.”

“명쥬 씨.” 자오화성이 명쥬를 불렀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쥬의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자오화성이 고개를 돌리자 베란다에서 걸어 나오는 명쥬가 보였다.

자오화성이 물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연맹 수장께서 심리학자와 과학자로 특별팀을 구성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치 소장님의 심리적인 동기, 소장님이 남긴 모든 흔적을 분석할 거라고 했어요. 또 저의 모든 과거도 분석해 리치 소장님이 이렇게 행동한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심리팀 정보를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연구 성과나 결론, 추측까지 뭐든 다 좋아요. 제가 제일 먼저 봤으면 하는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권한 있습니다.” 명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명쥬는 휴대폰처럼 생긴 기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명쥬와 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젊은 남성 네다섯 명이 몇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자오화성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자오화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명쥬의 명령에 따라 방으로 들어가더니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분 후, 이 젊은 남성들은 올때도 그랬듯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다. 명쥬가 자오화성에게 말했다. “과연부와 연결되는 최신형 컴퓨터, 3D 입체 영상 장치, 음성 통화 장치, 팩스 등이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이 시각부터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심리팀과 연결해 업데이트되

는 최신 연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심리팀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자오화성 씨에게 연락할 겁니다. 첫 번째 연구 자료는 이미 팩스로 보내왔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멍쥐가 팩스를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는 사인을 했다. 자오화성은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멍쥐는 “필요한 게 있으면 절 부르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자오화성은 의자에 앉아 꼬박 5분이 지나서야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자료는 상당히 많고 복잡했다. 자료 중에는 심리팀에서 리치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 조금씩 리치의 심리 모형을 구축해 놓은 것도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 심리 모형을 가지고 리치의 행동을 역 추측하여 기록돼 있는 리치의 실제 행동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만약 추측한 행동과 리치의 실제 행동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리치의 심리 모형에 저장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게 되면 보류해 두고 정확한 구조의 모델을 찾기 위해 한층 더 깊은 분석에 들어간다.

리치의 심리 모형에 관한 자료 외에 자오화성의 심리 모형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 리치의 자료를 볼 때만 해도 자오화성은 별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자신의 심리 분석에 관한 자료를 보자 자오화성의 등에서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수많은 사람에게 각종 장비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조사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조사 방식이라면 어떠한 비밀도 속속들이 다 파헤쳐질 것이다. 그게 설령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은 자오화성이 어젯밤 뒤척이며 밤잠을 설친 것도, 오늘 멍쥐에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했던 일도 정확하게 예언했다.

“이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가장 선진적인 심리학 이론에 다차원적인 빅 데이터까지 완벽히 갖춰야만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오화성은 그제야 인류연맹이 쥐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소용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자료 가운데 결국 결론은 다음과 같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현재 구축한 심리 모형으로는 아직 리치 소장의 죽기 전 행동들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리치 소장의 죽기 전 행동들은 그의 이전 행동에 근거하여 구축한 심리 모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심리팀의 추측으로는, 죽기 전 일정 시간 동안 리치 소장은 어떤 외부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직 리치 소장 곁에만 존재하며 다른 사람에게서는 노출되지 않은 어떤 외력으로 인해 리치 소장의 행동 패턴이 추측도 분석도 안 될 정도로 뒤죽박죽 흐트러진 것이다. 백지 한 장의 유품과 '자오화성이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건 아마 리치 소장이 미지의 외력을 피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리치와 관련된 모든 영상 및 음성자료, 행동 자료를 수집하여 그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상적인 리치와 비정상적인 리치의 변화 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을 찾게 된다면 당시 대체 어떠한 이유로 리치 소장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치 소장의 배후에 가려진 미지 세력의 정체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더 많은 자료와 결론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다리기 바란다.

자료는 여기까지였다. 자오화성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심리팀의 최종 결론은 조금 전 자오화성이 추측했던 결론과 기본적으로 같았다. 양측 모두 어떤 미지 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리치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심리팀에서 내놓은 연구 결론이 더 엄밀하고 더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자오화성은 더 곤혹스러웠다. 만약 정부 역량이 동원돼도 진상 규명이 어려운데,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과연 이 중대한 과제를 풀 수 있을까?

이번에는 태양위기협력대응센터 산하의 과연부에서 최근 진행한 태양 연구 및

관측에 관한 자료를 조회했다. 자오화성은 원래 본업이 항성 물리 분야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태양의 활동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지난 48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소형 태양 플레어가 총 29차례 관측되었다. 그러나 지난 24시간 동안 관측된 플레어는 13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태양은 11년 주기 중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태양 극대기로써, 정상적인 경우에는 C급 플레어가 일반적으로 매일 관측되며, 가끔 M급 혹은 X급 플레어까지도 관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B급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태양 대기 1호 위성이 촬영한 실제 사진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태양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한 결과나 추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사진 속 태양은 여전히 커다랗고 밝고 이글거렸다. 하지만 자오화성의 예리한 눈에는 사진 속에서 좀 희미하지만 적색이 보였다.

항성 분류에 따르면, 태양은 황색 왜성에 속한다. 항성의 색은 표면 온도로 결정되는데, 황색 빛이라고 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K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만약 적색이라면 이 항성의 표면 온도는 2,000~5,000K 정도가 된다. 그러나 지금 태양 빛에 적색이 섞이기 시작했다. 이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못해도 500K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에 매우 심각한 재난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구에는 자가 보온 시스템이 있어서 당장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이 때문에 인류 문명은 가까스로 충격을 완화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끊임없는 관측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의 밝기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화성의 밝기?” 자오화성은 의문이 좀 들었다.

태양계 주요 행성들의 운행 규칙에 대해서 자오화성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

다. 현재 화성은 마침 태양의 뒤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화성은 태양을 따라 함께 뜨고 진다. 낮에는 태양의 강렬한 빛 때문에 화성이 가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새벽이나 해 질 무렵이 돼서야 볼 수 있다.

화성은 지금 태양의 뒤쪽에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이는 화성은 바로 화성이 반사하는 태양 뒤쪽의 빛이다. 그렇다면 현재 관측되는 태양의 광도가 줄어드는 폭에 따라 화성의 밝기도 그만큼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화성에서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오화성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태양 복사 강도가 떨어지는 변화가 태양이 지구와 마주하고 있는 면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며, 도리어 그 반대편에서는 변함없이 정상적인 복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오화성은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진작 발견됐어야 맞는 거잖아. 우리가 발사한 위성이 전부 지구 쪽을 향해 있는 건 아니니까.’

인류 문명은 최근 수십 년간 많은 성간 탐사선을 발사했다. 이러한 탐사선을 통해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등 행성을 관측하기도 하고, 혜성이나 소행성도 관측한다. 심지어 가장 멀리 있는 탐사선은 태양권을 벗어나 비행하고 있다. 자오화성이 알기로는 하야부사호, 스타더스트호, 메신저호 등이 태양 뒤쪽에 있다. 만약 태양 뒤쪽으로는 복사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부는 지금에서야 화성의 밝기 변화를 통해서 이 점을 추측해 낼 게 아니라 진작 탐사선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자오화성의 의문은 얼마 가지 않았다. 잠시 후 깨닫게 되었다. 그 탐사선들은 전문적인 태양 탐사선이 아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이 밝은 천체를 자세히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의 광도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오화성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는 계속 읽어 내려갔다.

이 점이 발견된 후, 우리는 곧바로 전문적으로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을 조종

해 최대한 빨리 태양 뒤쪽으로 이동해 관측하도록 했다. 동시에 탐사선이 손상될 리스크를 감안하고 일부 우주 탐사선의 관측 렌즈가 태양을 조준하도록 하는 작업을 강행했다. 아직 명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나, 상황 파악에 대한 확신이 적어도 80%는 된다. 로엵 우주 망원경을 통해 태양 뒤쪽에 위치한 소행성 A7435D를 관측한 결과 역시 이 점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략 추론해 보면, 태양의 대기층(주요 의심 부분은 광구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리적 반응이 일어났다. 이 반응이 태양 내부로부터 나오는 빛이 외부로 방출되는 경로를 막고 있다고 추측된다. 현재 더 정밀한 관측과 모델링, 계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추론은 단순하고 초보적이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기도 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 태양의 구성 물질과 질량에 변화가 없다면 태양 복사 수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태양의 복사 수준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추론은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의 모순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즉,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태양의 대기층에 어떤 장애가 출현함으로써 태양 복사를 막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오화성은 묵묵히 생각했다. ‘대체 어떤 물리적 반응이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 만약 이런 물리적 반응이 정말 존재한다면 얼마 동안 계속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리치 소장이 내게 남긴 백지랑 무슨 상관인 거냐고.’

제2장 K2급 문명, 적도 사업, 생명의 성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자오화성과 전 지구의 모든 인류의 눈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질량-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에너지는 아무 원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 태양의 광구에 어떤 방해물이 나타났다면 방해를 받은 그 에너지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혹시 그 방해물이 흡열층을 구성한 걸까? 하지만 태양의 전체 복사 출력이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어떤 흡열층이 그 거대한 에너지 충격을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자오화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다이슨 스피어였다.

다이슨 스피어는 태양 에너지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구형 구조물이다. 이는 가설로만 존재한다. 이 가설 구체는 수많은 렌즈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렌즈들은 항성 전체를 완전히 둘러싼 후 항성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부 흡수해 버린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문명을 세 단계인 K1, K2, K3로 분류한다. K1급 문명은 행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00% 이용할 수 있으며, K2급 문명에서는 항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00%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K3급 문명에서는 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100% 이용할 수 있다.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다이슨 스피어가 바로 K2급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산물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카르다쇼프 척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인류 문명은 고작 K0.7급에 불과하다. 다이슨 스피어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정말 어떤 문명이 태양에 접근하여 태양 주변에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전부를 얻고자 한다면, 인류 문명의 K0.7급 실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K2급 문명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만약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의 종말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다행히도 이걸 단지 초보적인 추측일 뿐, 정말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자오화성은 생각해 봤다. ‘물리적 세계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K2급 문명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위배할 수는 없어. 만약 정말 다이슨 스피어가 있다면 이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에너지 흡수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해. 그런데 에너지 흡수 장치는 관측되지 않았잖아.’

수성 탐사선 선더스톰호가 이미 자신의 비행 궤도를 바꿔 전속력을 다해 태양의 뒤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대략 5일 후면 태양 뒤쪽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건 그때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 자오화성은 한숨을 내쉬며 들고 있던 자료를 내려놨다.

벌써 저녁이 다 되었다. 멍짚는 여전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오화성도 딱히 그를 찾지 않았다. 빵 한 개를 가져와 대충 배를 채우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자료를 찾지 않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포럼 몇 군대를 들여다봤다. 최근 이상 기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시 글들을 훑어보다가 어느 한 제목이 자오화성의 눈에 들어왔다.

‘최근 비정상적 기온 저하의 원인은 기후가 아닌 태양 복사 수준의 하락이다.’

자오화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게시 글을 열었다.

게시 글에는 구체적인 관측 데이터가 전혀 없었다. 천문애호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 게시자는 자신이 태양 관측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장비를 가지고 태양을 조준해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산했더니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게시 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몹시 두려워하는 말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정부는 분명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은밀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지하에 방공호를 건설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선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쨌든 현재 더는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구책을 찾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식량과 물, 그리고 연료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 지구의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댓글을 보니 회의적이거나 비웃는 등 대부분 믿지 않는 반응들이었다. 하지만 자오화성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 일은 오래 숨길 수 없다. 태양 복사 강도의 변화를 관측하는 건 최첨단 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을 공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련 지식과 어느 정도 경험을 갖춘다면 누구나 시

간을 좀 들여 정밀한 관측을 진행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천문 포럼을 찾았다. 자오화성의 생각을 검증할만한 발표 자료가 있었다. 여기서 ‘태양 복사 강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다만 여기서는 분명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이 토론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형성 메커니즘과 배후의 물리적 원리에 불과했다. 그들은 여전히 이번 사건을 정상적인 태양 활동의 한 과정으로 여겼다. 아직 다른 측면으로 의구심을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만약 태양 복사 수준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면, 의구심을 갖는 건 시간문제야. 그때 이 사실이 천문학 분야의 전문 지식인에서 시작돼 전 사회로 퍼져 나갈 거야. 그럼 모두가 알게 되겠지. 아무도 그걸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 그때가 되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일이야. 대응센터에서 사회적 혼란에 대응할 준비를 이미 마쳤길 바라야지. 적도 부근 대규모 방공호 건설이 혼란을 통제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완공되기를 바라야겠지.’ 자오화성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컴퓨터 전원을 껐다.

시간이 벌써 밤 9시가 되었다. 여름밤치고는 시간이 아직 이르지만 자오화성은 다른 일을 할 의욕이 없었다. 가볍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자오화성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기도 하고, 낮에 한 번씩 문득 떠오른 생각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기도 한다. 지금 자오화성은 오늘 하루 중 두뇌 회전이 가장 잘 되는 시간에 낮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여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오화성이 온 힘을 다해 생각을 쥐어짜 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과도한 생각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었다. 자오화성이 눈을 감을 때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에는 하늘에서 큰 눈이 내리고 매서운 칼바람이 끊임없이 불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은 주변에 옷이 란 옷은 모조리 꺼입어도 여전히 추위가 엄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죽었고,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식량이나 연료를 얻기 위해 서로 달려들어 싸웠다. 그 장면 속에서 생명은 얼마나 하찮고 보잘 것없었는지….

그건 지옥이었다. 인류가 상상해 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지옥. 문명은 사라졌고 질서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도덕심과 예의, 법률과 양심 따윈 전혀 없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완전한 짐승으로 퇴화해 버렸다. 그건 모든 문명의 종말이었다. 아니, 인류 문명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의 종말이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자오화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이 모든 것을 바꿀 방법을 생각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결국 새벽이 돼서도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태양은 거둬 자신만의 순회를 마치고 다시 지평선에서 떠올라 눈에 띄게 약해진 자신의 빛과 열을 대지에 내리쬐었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새벽의 찬바람이 들어오자 자오화성은 이불을 더 끌어 올려 덮었다.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오화성은 햇빛과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느꼈다. 지난 40억 년 동안 지구는 줄곧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빛과 열을 공급받아왔다.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태양의 존재를 등한시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태양의 활동이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나서야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명은 비로소 태양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오화성은 이불을 젖히고 쌀쌀한 새벽 공기를 느꼈다. 자오화성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죤피죤한 얼굴, 덩수룩한 수염, 생기 없고 여윈 모습이었지만 눈에서만큼은 빛이 났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산되는 어떤 역량이 자오화성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 자오화성은 일어나 얼굴만 대충 씻었다. 머리도 안 빗고 이도 닦지 않았다.

“명쥐 씨, 있나요?” 자오화성이 텅 빈 방을 향해 명쥐를 불렀다.

“네.” 냉담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변함없이 꼳꼳한 자세를 유지한 채 말끔한 옷차림을 한 명쥐가 베란다에서 걸어 나왔다.

“연구소에 좀 데려다줘요. 찾을 물건이 있어서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자오화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곳인 항성물리연구소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 이곳에는 익숙한 사람들도 익숙한 업무도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낯설어 보였다.

동료 대부분이 이곳에 있었다. 항성 물리를 연구하는 주요 기관인 이 연구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분명 그들은 어제

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했을 것이다. 만약 리치의 유품이 없었다면 지금 자오화성 역시 이곳에서 태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주하게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다소 무겁고 답답했다. 자오화성은 몇몇 직원들과 적당히 인사를 하고는 명취를 데리고 다른 건물로 이동했다. 이 건물은 훨씬 높고 컸지만, 내부에는 가운데가 비어있었다. 거대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자오화성도 예전에 직접 다뤄본 적이 있었다.

2년 전 즈음 리치 소장의 요구로 마련된 설비였는데 주로 태양 내부의 물리적 운행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쓰였다. 설비가 갖춰진 후로 수많은 연구에서 성과를 냈다. 그 설비 중에는 한 가지 특수한 장비가 있었는데 그건 리치 소장 외에는 아무도 만져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장비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도 받아보지 못했다. 당시 연구소에는 리치 소장이 중대한 과제를 맡았는데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은 그곳 접근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제 자오화성은 그 소문을 검증해 보려고 한다. 최근 한동안 리치 소장이 줄곧 무엇 때문에 분주했었는지, 혹시 그 일과 리치가 은밀히 남긴 암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자오화성과 명취는 리치가 썼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연안부 직원 몇 명이 그들을 막아섰다. 명취가 어떤 증서 같은 걸 꺼내 보여주자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 말 없이 한쪽으로 물러섰다.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사무실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제실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내부 정중앙에는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위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스크린 속 화면에는 더 크고 넓은 홀이 있었는데, 그 홀 정중앙에는 자오화성이 모르는 기계가 한 대 있었다. 그 기계의 한가운데에 굽직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는 타이어처럼 생긴 링 모양 기계가 장착돼 있었다. 기둥이 링 형태의 기계 중앙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자오화성이 모르는 과연부의 연구원 몇 명이 여기 사무실과 스크린 화면에서 보이는 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분주히 일하다가 이곳을 향해 무언가를 보고한 후 모두 홀을 빠져나갔다. 그 뒤 홀에서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공기 파동이 일어났다. 이는 배기펌프가 작동 중이기 때문이었다. 공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빛을 교란해 일어난 파동이라는 것을 자오화성도 알고 있었다.

‘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뭘 하려는 거지?’ 자오화성은 속으로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직접 묻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한 쪽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멍죄도 한마디 말없이 자오화성 옆에 서 있기만 했다. 사무실 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 둘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배기펌프가 한참 동안 작동된 후 가동을 멈췄다. 한 연구원이 홀 중앙의 공기 함량을 체크한 후 사무실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스크린 속 기둥에 설치된 링 모양 기계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회전의 가속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육안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회전했다.

“이건 헬리콥터 프로펠러 회전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자오화성이 물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는 일반적으로 분당 600회 정도 회전하는 반면, 현재 이 기계는 적어도 초당 1,000회는 회전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조작하는 과연부 연구원이 답변했다.

“초당 1,000회요?” 자오화성은 몹시 놀란 듯했다. 재료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자오화성이 아는 바로는 이 정도 빠른 속도라면 저 링 모양 기계가 엄청난 원심력을 버텨야 한다. 이렇게 강한 원심력을 견뎌내고도 온전히 상태 유지되는 재료라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 걸까?

‘리치 소장님은 도대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연구하고 있었던 걸까?’ 자오화성은 또다시 의문이 들었다. 저 거대한 링 모양 기계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 대형 스크린의 화면도 바뀌었다. 새로운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자오화성은 보자마자 흠칫 놀랐다.

이번에는 자오화성에게도 아주 익숙한 화면이었다.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다.

화면에 비친 것은 마그마 같은 것이었는데 한 눈으로 봐도 그 속에 내포된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화면은 여러 차례 소광 상태를 거친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옅은 갈색에 암홍색이 섞인 색으로 보였다. 그리고 어떤 기체 같은 것이 그 표면에서 쉼 없이 솟아오르는 것도 보였다. 어떨 때는 그 기체들이 공중에서 고리 형태로 이어지다가 기류처럼 보이는 강한 힘으로 인해 형태가 흩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결되고 또 부서지고 이러한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이건 분명 태양의 표면 사진이었다. 그런데 지금 왜 태양이 여기서 나타난 것일

까?

“실시간으로 초당 1,135회 회전하고 있으며, 현재 온도는 5,867K예요. 현재 아폴로는 이미 태양의 표면 중력 및 온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어요.” 컴퓨터를 조작하던 연구원이 자오화성에게 말했다.

자오화성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설명해 준 연구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오화성 씨, 저도 당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연구원이 말했다. “전 왕탕이라고 해요. 위기협력대응센터 과연부 소속이죠. 심리팀에서 리치 소장님의 심리 모형에 관한 연구를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에게 진상 파악을 부탁하더군요.”

“그럼 진상 파악이 다 됐나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네.” 왕탕은 스크린 속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대형 링 모양 기계와 스크린 우측 하단에 보이는 태양의 표면 사진을 가리켰다. “바로 이거예요.”

“리치 소장님이 최근 한동안 연구했던 게 이거라고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거랑 리치 소장님이 남긴 메시지랑 무슨 관계가 있죠?”

이 이상한 기계는 바로 태양의 표면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장치였다. 높은 회전 속도로 인해 발생한 원심력을 빌려 기계 내부에 태양 표면과 비슷한 거대한 중력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기계 외부의 전자기 유도 가열 시스템 및 자기장 시뮬레이터를 통해 태양의 표면 온도와 자기장을 만들어냈다. 거기에 약간의 조정을 더하여 최소 95% 정도 실제와 비슷한 태양의 표면이 만들어졌다.

이 기계가 만들어졌으니 과학자들은 실제에 가까운 태양의 표면에서 재료 성능을 측정하고, 태양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심지어 태양의 내부 구조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리치 소장은 이곳에서 일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혼자 연구해 온 것이다. 리치 소장이 죽기 전 모든 정력을 이 기계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게 리치 소장이 남긴 메시지와 무슨 상관이 있던 말인가.

“글쎄요.” 왕탕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심리팀에서 알아봐야 할 문제인 거 같네요. 전 그저 심리팀에게 이 기계의 용도를 설명해 주고, 이 기계로부터 얻은 자료가 항성 물리학자 한 사람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 추측해 줄 뿐이에요.”

자오화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질문했다. “추측 결과를 저도 좀 볼 수 있나요?”

왕탕은 아주 흔쾌히 대답했다. “그럼요. 저도 연락받아서 자오화성 씨 상황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게요. 태양 표면의 물리적 환경에 관해 연구하는 데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자오화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자오화성이 중요한 사람이란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자오화성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오화성은 왕탕 뒤에 서서 컴퓨터 모니터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쳐다봤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오화성에게도 익숙했다. 태양 표면의 몇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정보였다.

자오화성은 잠시 데이터를 보다가 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 중 어느 데이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고정밀 발광 강도 측정기요? 정밀도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거죠? 이렇게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왕탕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당시 리치 소장님이 요청해서 설치된 거예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광 강도 측정기는 빛의 세기를 측정할 때 쓰이는 기기이다. 상식적으로 태양의 표면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설에 발광 강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쨌든 태양 표면의 광도는 강하고 광도의 변화도 물리과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발광 강도 측정기가 필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다소 이상하리만치 측정기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았다. 자오화성은 측정기의 파라미터를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더니 결론을 냈다. 이건 한날 촛불 한 대 정도에 불과한 태양의 광도 변화까지도 측정해 낼 수 있는 장치였다.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일까? 태양에서 1억5천만km나 떨어져 있는 지구에서는 여전히 태양이 눈이 부셔 직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태양 표면의 강도는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광도를 고작 촛불 한 대만큼 약해진 변화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면, 이 기기의 성능은 또 얼마나 강한 것인가.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리치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성능을 갖춘 기기를 이곳에 설치했는지 자오화성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혹시 심리연구팀에서는 리치 소장님의 의도

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의문스러워하는 자오화성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왕탕이 먼저 말했다.

“혹시 현재 태양의 복사 강도 변화와 태양 표면의 광도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도 태양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리치 소장님이 태양 표면의 광도가 약해진 변화를 통해 이 점을 발견한 건 아닐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이 있는 걸까요? 광도 변화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나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상황은 제가 이미 상부에 보고했으니 조만간 누군가 조사에 착수하게 될 거예요. 태양 위기가 발생하기 전 태양 광도의 미세한 변화가 의미하는 물리적 상황을 알아볼 거예요.” 왕탕이 말했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을 만한 고정밀도 성능을 갖춘 광학 측정기라면 많은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 기기도 결국엔 태양의 표면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뿐이에요. 결코 진짜 태양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한계가 있어요.” 왕탕은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제가 볼 때 이 일은 물리학계가 태양 연구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자오화성 씨가 리치 소장님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을 줄 뿐인 것 같네요.”

“알겠어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기존 정보에 근거해 우리가 아는 바로는, 리치 소장님은 적어도 일 년 전에 이미 태양 위기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 년 전 리치 소장님이 미세하게 약해진 태양 표면의 광도 변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구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일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 왕탕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오화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왕탕은 “필요한 자료는 곧 보낼게요.”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왕탕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옆에 있는 분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을 거예요.”

멍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취는 지위도 높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인 것 같았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24시

간 수행하고 있으니 자오화성은 연맹 수장이 얼마나 자신을 중요시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싶지 않았다. 자오화성은 남몰래 한숨을 지으며 뒤돌아섰다. “우리 이만 가죠.”

항성물리연구소를 왔다 가면서 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의문점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을 풀어야 비로소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가 더 두려운 일이다. 무엇을 어떻게 손 써야 할지 모르니까.

얼마 뒤 자오화성이 필요했던 자료가 도착했다.

첫 번째 자료는 모두 태양의 표면 환경에 관한 연구 자료였는데 눈여겨 볼만한 자료는 아니었다. 자오화성의 시선을 끈 것은 두 번째 자료였다.

리치 소장이 생전에 사용했던 컴퓨터, 휴대폰 및 그 외 IT 기기와 저장 장치 등 각종 전자 기기들을 조사한 결과, 이 물건들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료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리치 소장이 죽기 전 이 물건들 안에 저장된 기록을 철저히 삭제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로 인해 자료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리치 소장이 빠뜨린 것인지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철저한 조사 끝에 쓰레기 수거 처리 센터에서 리치 소장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 하드디스크는 물리적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는 이 하드디스크 역시 마찬가지로 복원이 어려우나, 컴퓨터 과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복원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여 하드디스크를 그들에게 넘겼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운 끝에 결국 용량이 200B 정도 되는 데이터 복원에 성공했다.

B는 바이트(Byte)의 기호로, 1,024B는 1KB, 1,024KB는 1MB, 1,024MB는 1GB에 해당한다. 200B 정도의 데이터면 대략 500자도 채 안 되는 크기의 텍스트 파일이다. 그러나 이걸 1,000G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이다. 전체 인류 세계 및 지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저장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손실된 상태이며, 복원된 내용은 500자도 채 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리치 소장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 속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파악 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기록물이 도움이 될지 더욱 의문이 든다. 복원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의 첫 번째 임무는 생존이야. 생존의 본질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는 거지. 생명체는 자신의 소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자신의 정보를 보존하려고 해. 이를테면 번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거지.

-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번식에 관한 정의는 나도 동의해. 그런데 그전에 했던 말은 인정 못 하겠어.

- 왜지?

- 생명의 첫 번째 임무는 생존이지. 그런데 생존의 본질은 결코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거야.

-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 생명체는 본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위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어쩌면 다음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손상된 다른 하드디스크와 같이 더는 복원되지 않는다. 이 내용 이외에 복원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고 그 내용은 더 미스터리하다.

- 나올 수 있겠니?

- 아니. 밖은 너무 추워.

- 추우면 어떻게 되는데?

- 배불러서 죽고 말겠지.

이 두 가지 대화 내용이 전부였다.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자오화성은 손에 든 자료를 내려놓고 창가로 가 창문을 열었다. 선선한 여름 바람이 자오화성에게로 불어

왔다. 건물 밖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생명체가 본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자오화성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상대적으로 생명체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시킴으로써 생존을 유지한다고? 인류는 항상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지. 동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생존의 본질과 관계가 있을까?’

‘밖에는 춥고, 배불러서 죽게 될 것.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 리치 소장님은 도대체 누구랑 대화한 걸까? 리치 소장님과 대화한 그 미스터리한 사람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자오화성은 자신이 마치 어떤 논리의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았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맞닥뜨리는 일마다 모두 이상했다. 이런 이상한 일들 사이에는 어떤 암묵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자오화성은 이러한 일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줄곧 생각해 내지 못했다.

자오화성은 자신에게 실마리를 풀 열쇠가 없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핵심만 알면 모든 일이 하나로 이어지고 모든 의문이 자연스레 풀리게 된다. 그런데 리치 소장님이 유일한 유품을 자신에게 남긴 것으로 봤을 때 그 열쇠는 자신한테 있는 것이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대체 뭘까?

특별히 자신에게 남긴 백지 한 장, 그리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 이 둘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자오화성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을 향한 자오화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간을 꼭 잡고 있던 양손에 핏줄이 솟았고, 심지어 몸까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지금 자오화성은 리치 소장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리치 소장님이 왜 이 모든 의문을 나에게 떠안겼는지, 어째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고 이 모든 걸 풀라고 하는지 정말 원망스러웠다. 의문을 풀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나에게도 실마리가 전혀 없지 않은가.

자오화성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억눌렀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될 수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날은 다시 어두워지고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다.

자오화성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다. 방에서 나와 텅 빈 거실을 향해 말했

다.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멍췌가 다시 베란다에서 나왔다. “그러죠.” 자오화성은 미혼이라 요리를 해 줄 부인이 없었고, 멍췌도 보아하니 요리할 줄 아는 것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 갔다.

식당 주인은 60대 어르신이었다. 그는 주방을 맡고, 그의 아내는 서빙과 계산을 담당했다. 식당 주인은 요리 솜씨가 좋았고, 음식도 깔끔했다. 그래서 이 식당은 늘 장사가 잘됐다.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장사가 잘 안되는 모양이었다. 저녁 시간이라 점심때만큼 몰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당 안에 손님이 너무 없었다.

손님이 없어서인지 식당 주인도 주방에서 나와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벽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고정돼 있었는데, 식당 주인은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열중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점잖고 단정한 차림을 한 아나운서가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담지 않은 채 뉴스를 보도했다.

“적도 사업이 오늘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적도 각지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적도 사업의 기초 건설 및 치안 유지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우대 정책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적도 주변에 대거 모이고 있으며, 건설에 참여하게 될 인원수는 3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대사업으로 식음료, 문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각종 분야에서 연인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적도 사업의 성공 여부가 인류 문명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적도 사업에 최대한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적도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도 주변이 전 지구의 경제, 문화, 정치,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이자 인류연맹의 쑨휘 건설부장을 연결했습니다. 적도 건설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후속 계획에 대해 쑨휘 건설부장의 간략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쑨휘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작은 지구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적도 부근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모든 자원이 적도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 철도 노선 26개와 항공 노선 195개, 해운 노선 36개가 개통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집계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물자가 적도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5천 개가 넘는 생활 구역 및 부대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한 구역당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 사업으로 1억 명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해양 매립으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원료 공장 및 가공 공장 이외에 에너지, 전력, 식품, 경공업 등 각종 분야의 공장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명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만약 인류 문명을 위해 힘을 보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다면, 아울러 자신의 노동력으로 많은 혜택과 금전적 보수를 받고 싶다면 적도로 오십시오. 적도 사업은 이제 막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직업, 나이 등과 같은 조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쉰휘 부장을 잡고 있던 화면이 그의 뒤로 보이는 분주한 공사 현장으로 전환됐다. 이때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조금 전 연맹 정부 교통운수부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교통운수부에서 적도 부근으로 가는 적도 사업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차표를 제공해 주고, 이동 도중에 필요한 것은 모두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맹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확인한 소식에 따르면, 연맹 정부를 적도로 이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수도는 더는 희망시가 아니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적도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네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명분이 뭐죠? 정부가 적도 사업을 무슨 명목으로 선전하는 거죠?”

“우주 엘리베이터와 대형 우주 도시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멩취가 말했다. “적도 부근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라, 그곳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기에는 이유가 너무 불충분한데요.” 자오화성은 어떤 생각에 잠긴 듯하면서 말을 했다. “인류 문명은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우주 과학 기술을 발전 시켜서 우주로 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모든 걸 바꾸고, 전 인류의 생활 습관을 바꾸겠다는데,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죠? 진실을 얼마나 오래 은폐할 수 있을 거 같나요?”

명취가 자오화성을 힐끗 쳐다보고는 여전히 냉담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가 이런 명분으로 오래 버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장기간 은폐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현재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지는 속도를 봤을 때, 두 달이면 북위 및 남위 50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더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적도 건설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거주지, 에너지 공장, 발전소, 제철소, 식품 공장 등을 최대한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도 최대한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건설 사업은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겨우 실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 사업에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어떤 명분을 내세워 그들의 눈을 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적도로 보내는 겁니다. 정부는 그저 설계할 뿐이지 실무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자신들이 사용할 발전소,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프라 등등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짓는 것은 모두 다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정부는 적도 사업이라는 명분에 허점이 얼마나 많고, 누군가 그것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명분으로 많은 인구가 적도로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합니다. 적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0억 명도 안 됩니다. 즉, 우리 정부는 60억 인구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오화성은 갑자기 좀 무력감이 들었다. 60억, 이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숫자였다.

자오화성은 상상할 수 있었다. 물자를 가득 실은 기차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철도 위를 달리는 것을, 화물 수송기들이 하늘 위에서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선박들이 바다를 건너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인류 사회의 자산과 인구를 가능한 한 많이 적도 부근으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그곳 적도야말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임무는 너무 막중하다. 전 인류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세상이 갑자기 다 변해 버린 것 같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식당 주인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어르신은 적도에 안 가세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사람들이 다 적도로 가버리는 바람에 식당에 손님도 별로 없잖아요.”

“안 가. 늙어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냥 여기 있는 수밖에.”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손님이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식당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생 보내야겠네.”

“어르신, 그래도 가셔야죠. 정부가 경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잖아요. 어르신은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까 거기서 식당 새로 차리면, 장사도 분명 잘 될 거예요.”

“됐네, 됐어.” 식당 주인이 말했다. “그래 봤자 앞으로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그냥 여기 있겠네.”

자오화성은 마음이 좀 답답했다. 식당 주인에게 진실을 말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무리 허술해도 명분은 명분이다. 명분이 있으면 인류 사회는 기본적인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핑계조차 없어서 정말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진실이 얼마나 큰 동요와 혼란을 일으킬지, 적도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또 그 진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점은 자오화성도 잘 알고 있었다.

“가시죠.” 자오화성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명쥐와 식당을 나왔다.

“적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오화성이 물었다.

명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정부는 전체 국면을 고려해야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인구 대부분이 적도에 모이고 국면이 안정되면, 그 후 정부가 진실을 밝혀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오화성은 낮이 나간 채 말했다. “그렇군요. 그런 거군요. 정부는 분명 최선을 다했군요.”

날이 벌써 어두워졌다. 자오화성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흐릿해 보였다. 금성, 목성, 토성, 화성도 모두 흐릿했다.

태양의 광도가 낮아지면서, 태양광에 반사되어 지구에 비치는 천체들의 밝기도 자연스럽게 약해진 것이다.

멍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 위기협력대응센터의 과연부에서 들은 바로는 조금 전 화성의 밝기도 약해졌다고 합니다. 약해진 정도가 태양 복사 수준이 떨어진 정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오화성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에는 화성의 밝기에 변화가 없었다. 이는 태양 뒤쪽은 복사 수준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 화성도 어두워지고 있다.

멍쥐의 말이 여전히 자오화성의 머릿속으로 들려왔다. “그런데 과연부는 여전히 수성 탐사선 선더스톰호를 태양 뒤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 뒤쪽의 복사 강도가 약해진 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부는 거기서 어떤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태양이 완전히 포위됐네요.” 자오화성이 한숨을 쉬었다. “오늘 태양 상태는 어때요?”

“호전되지 않았습시다. 태양 복사 수준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멍쥐가 고개를 저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태양 복사 수준이 계속 떨어져서, 적도마저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돼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인류는 어떻게 되죠?” 자오화성이 숨이 찬 듯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멍쥐가 자오화성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적도 사업은 대중에게 공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명의 성’이라는 계획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질이 안정적인 어느 지역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완전히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태양 복사 수준이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저온과 각종 악천후를 방어할 것입니다. 설사 태양이 완전히 소멸해 지구의 대기층이 전부 고체로 응고돼서 지면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두껍고 단단한 외벽과 방어 시스

템이 성을 보호해 줄 겁니다. 생명의 성에서는 우주의 각종 해로운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소행성의 폭격을 받거나 진공과 저온 상태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따위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죠?”

“기껏해야 200만 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과연부에서 이미 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종말 이후 지구는 에너지 확보가 극도로 어렵게 됩니다. 만약 인구가 200만 명이 넘게 되면, 식량과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비축해 놓는다고 해도 10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어 핵융합 부문에서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60억이 넘는 인구인데…” 자오화성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사실 자오화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이 너무 참혹해서 감히 생각도 하기 싫었다.

그러나 자오화성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답을 멍죄는 너무 쉽게 내뱉었다.

“죽는 거죠.” 멍죄는 냉정하게 이 한 마디를 내뱉었다. 조금도 변함없는 말투였다. “저는 멍죄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나요?” 자오화성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다.

“인류 사회의 엘리트들이죠.” 멍죄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엘리트여야만 인류 문명을 계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성공한 사업가도 포함될 겁니다. 그들은 성공으로 이미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고위 정치가도 그 안에 속할 겁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없으면 인류 사회는 완전히 붕괴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 화가, 가수, 서예가 등이 있겠죠. 그들은 인류의 과학 기술과 문화를 계승할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만이 생명의 성으로 들어가는 통행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엘리트 범주에는 저와 자오화성 씨도 포함됩니다. 자오화성 씨는 지금처럼 특수한 신분이 아니더라도 항성 물리학자로서 생명의 성에 진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닭, 오리, 거위, 호랑이, 표범 등과 같은 지구상의 각종 동물도 있고,

각종 식물 종자도 있습니다. 만약 이후 어느 날 태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인류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동식물이 없으면 인류가 생존하기 힘들어지겠죠. 또한 각종 예술품이나 진귀한 물건들도 생명의 성에 보존될 것입니다. 위기센터에서 이미 일차적으로 인원을 선별하고, 각종 동물 샘플과 함께 예술품, 진귀품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적도마저 더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그때 가서야 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당연히 이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용지물이 되길 바랍니다.” 멩쥐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와는 반대로 자오화성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들 정말 주도면밀하고 철저하시네요. 뭐든 다 생각해 내는군요. 심지어 예술품에 동물 샘플까지도 보존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인류는 생각 안 하나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려 70억 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자오화성이 목소리가 쉰 채로 소리를 쳤다. 자오화성은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처럼 눈이 이글거렸다.

그러나 멩쥐는 마치 자오화성의 감정 변화를 못 본 것처럼 변함없이 차분함을 유지했다. 멩쥐가 다시 자오화성을 힐끗 쳐다봤다. “이미 얘기했듯이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서 한 개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 문쥬. 상황이 정말 최악에 이르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생명의 성에는 200만 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일반인을 선택하겠습니까? 설령 그 200만 명이 전부 일반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70억에 가까운 인구는 생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기왕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째서 능력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인류 문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는 능력자 말입니다.”

자오화성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기왕 누구를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째서 능력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던 멩쥐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생명의 성에 들여 보내는 것이 분명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를 살려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생명의 성에 진입할 수 있는 엘리트는 정원이 1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은 일반인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명쥐가 말했다. “적도로 향하는 대이동 과정에서 과연부 산하의 유전자은행이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혈액을 채취할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자를 선별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존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일반인을 놓고 다시 선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청장년 층을 가려내 명단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 생명의 성의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남녀 별 인구 구성비 등 데이터를 결합하여 마지막으로 인원을 선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 100만 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에 진입하는 200만 명 이외에 나머지 70억 명은 흑한에 시달리다 죽게 되겠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오화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썰렁해진 거리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적도 사업이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변화했던 이 대도시는 한순간에 적막해졌다. 그래도 변화가에는 아직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서로 손을 잡고 지나가는 커플이 보였다. 여름밤인데도 쌀쌀해진 날씨 탓에 두 사람은 벌써 긴바지에 긴소매를 입고 있었다. 길을 걷던 도중에 커플 중 남자가 고개를 숙여 여자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속삭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서 여자에게 다정하게 걸쳐줬다. 여자는 남자를 꼭 안았고, 남자도 여자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꼭 붙어 있었다. 마치 이 세상 어떠한 힘으로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그러나 자오화성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태양 복사 수준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만약 생명의 성 계획이 정말 실행된다면, 만약 유전자 선별 과정에서 남자는 선택되고 여자는 떨어진다면, 아니면 여자는 선택되고 남자는 떨어진다면,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떨어진다면..., 만약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면, 저 커플처럼 서로 사랑하는 부부, 부자, 형제자매, 친구, 연인 등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

갑자기 무언가가 자오화성의 마음을 툭 건드린 것처럼 차마 더는 저 커플을 볼 수가 없었다.

“사실상 저들의 운명도 어느 정도는 당신 손에 달려있군요.” 자오화성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멩쥐가 자오화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 마치 자오화성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그게 내 손에 달려있단 말입니까?” 자오화성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멩쥐가 말했다. “만약 리치 소장님이 정말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고, 또 자오화성 씨가 정말 리치 소장님이 남긴 그 의문을 풀어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이런 잔인한 선택에 직면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도 이별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되겠죠.”

“알겠어요. 이만 가죠.” 자오화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서 갔다. 멩쥐가 자오화성 뒤에서 걷고 있는데, 자오화성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 새치가 몇 가닥 보였다. 멩쥐는 분명히 기억했다. 어제까지도 그의 머리에 새치가 없었음을.

제3장 리웨이 I

자오화성은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다. 어두운 달빛 아래 창밖의 쉼없는 밤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적였다. 자오화성은 40시간이 넘도록 여태까지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자오화성의 몸과 마음에 채찍질하며 자오화성을 잠들지 못하게 했다.

아침이 되자 자오화성은 얼굴이 더 초췌해졌다. 현관에서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오화성은 문을 열어주려고 대충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자 자오화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얼른 침대 끝을 잡고 좀 괜찮아지길 기다렸다가 비틀거리며 침실을 나왔다.

자오화성이 문을 열자, 문 앞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여자는 키가 170cm 정도 돼 보이고, 늘씬한 체형에 긴 머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린 채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자오화성은 잠시 생각하고 나서야 그녀가 리웨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얼마 전 회의 때 리웨이와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우리 오빠와 관련해서 생각난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직 아침을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오는 김에 하나 사 왔어요.” 리웨이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들어 자오화성에게 보여줬다.

“감사합니다.” 자오화성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오화성이 막 몸을 돌리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현기증이 심하게 났다. 그 순간 세상이 깜깜해졌다가 이번에는 또 하늘이 노래지더니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자오화성은 의식을 잃기 전, 리웨이가 깜짝 놀라 소리치는 게 어렴풋이 들렸다.

자오화성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리웨이는 얼른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려놓고 자오화성을 부축하려고 했다. 그때 베란다에서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중년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 강직하고 굳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멩쥬였다.

리웨이는 멩쥬를 알고 있었다. 멩쥬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비켜섰다. 멩

쥐는 손가락으로 자오화성의 목 부위 대동맥을 눌러보기도 하고, 눈을 벌려 보기도 하더니 자오화성을 일으켰다.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폰과 비슷한 어떤 기기를 꺼내 무언가를 몇 번 누르자,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군복 차림의 청년 몇 명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과 멩쥐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은 들것을 가져와 자오화성을 싣고서 데리고 나갔다.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어서 멩쥐가 옆으로 비켜서 있던 리웨이에게, “별일 아닙니다. 그저 과로로 쓰러졌을 뿐입니다. 오빠에 관한 일을 자오화성 씨에게 알리러 왔다고 하던데, 저를 따라오시죠.”라고 말하며 바로 나갔다.

리웨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멩쥐의 뒤를 따랐다.

자오화성이 눈을 뜨자 흰색 천장과 침대의 수액 걸이에 걸려있는 링거가 보였다. 링거병에서 뺀어 나온 링거 호스를 통해 투명한 액체가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투입됐다. 실내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가 풍겼다. 자오화성이 고개를 돌리자 멩쥐가 보였다. 멩쥐는 우뚝 솟은 큰 산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병실 창가에서 있었다.

그때 리웨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자오화성이 깡 걸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과로에 저혈당까지 와서 쓰러진 거래요. 꼭 쉬고 잘 먹으면 괜찮아진대요.”

자오화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리치 소장님에 관한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1년 전쯤이었어요. 오빠가 저보고 고정밀 발광 강도 측정기 다루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오화성 씨도 아시다시피 제가 광학 연구를 하잖아요. 오빠는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원했어요. 이렇게 높은 정밀도를 갖춘 장비는 보통 생물 의학 분야에서나 사용되죠. 항성 물리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항성물리연구소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오빠한테 이걸로 뭐 하려고 하나면서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나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는 저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리웨이가 고정밀 발광 강도 측정기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자오화성의 마음에

다시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리웨이도 리치가 그 장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다시 또 낙담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알고 있다고요?” 리웨이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더 물어보진 않았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요. 어떤 게 자오화성 씨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냥 한꺼번에 다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자오화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오빠는 여태껏 독신으로 살았어요. 이 점은 자오화성 씨도 알고 있을 거예요.” 리웨이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말했다. “우리 둘은 고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죠. 오빠는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40세가 다 되어가도록 여자친구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오빠가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어울릴만한 사람을 찾아주려고 평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인에게 부탁해 소개팅도 몇 번 주선해 봤지만, 우리 오빠는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죠. 매일 사무실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전부터는 오빠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종일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가끔 저와 마주칠 때면 오빠는 항상 낯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좀 이상해 보여서 유심히 살펴봤죠.”

자오화성은 점점 이야기에 몰입하게 됐다.

“한번은 오빠가 또 며칠 연속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주려고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거기 경비원도 제가 리치 오빠 여동생이라는 걸 잘 아니까 저를 그냥 들여보내 줬어요. 사무실 문을 여니 오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채팅 창 같은 게 띄워져 있었고요. 메신저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렇군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오빠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채팅 창을 닫아버렸어요. 고개를 돌려 저라는 걸 알고는 저를 크게 혼냈어요. 앞으로는 들어오기 전에 먼저 노크하라면서요. 오빠랑 저는 아주 친하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이런 일로 저를 야단치길래, 무슨 일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오빠가 남몰래 어떤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데 쑥스러워

서 저한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리치 소장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자오화성이 물었다.

“몰라요.” 리웨이가 침울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오빠가 드디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구나 하고 속으로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너무 진지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좀 걱정됐어요. 마음에 둔 여자가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릴까 봐요. 오빠를 돕고 싶은 마음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오빠가 집에서 설 때를 틈타 몰래 오빠 회사로 갔죠. 경비원에게 오빠 대신 뭐 좀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사무실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 컴퓨터를 켜는데…”

자오화성은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리치의 컴퓨터에는 아마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비밀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컴퓨터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복원시킨 데이터가 겨우 200B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리치의 여동생인 리웨이는 리치의 컴퓨터가 온전한 상태였을 때 그걸 열어 봤다고 한 것이다.

“거기에 어떤 게 있던가요?” 자오화성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물었다.

리웨이는 다소 이상하다는 듯이 자오화성을 쳐다봤다. “컴퓨터에는 과학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자세히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전에 봤던 메신저 프로그램을 찾았죠. 채팅 창을 열어봤는데 최근에 했던 대화 내용 몇 마디뿐이었어요. 과거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아직 기억해요?” 자오화성이 다급하게 물었다.

“기억해요.”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이 아주 짧았어요. 다 해 봐야 몇 십 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해요.”

“어서 말해 봐요!” 자오화성이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리웨이가 잠시 기억을 더듬고는 말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 여기서 나가게 해 줘.
- 나오려고? 배불러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무섭니?
-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준다면.
- 알았어. 내가 도울게.

“대화 기록은 이 네 마디가 전부였어요.” 리웨이가 말했다.

병실은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자오화성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불안정한 기색이 역력했다. “확실한 건가요? 한 자도 틀림없이 확실해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확실해요.” 리웨이가 확실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해요. 얘기했다시피 그때 전 원래 오빠와 그 여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대화를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 잘못 기억할 리가 없죠.”

“멍췌 씨, 지금 들은 대화 내용을 심리연구팀에 전달해 줘요.” 자오화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멍췌에게 말했다. 멍췌는 간단명료하게 한마디로 답했다. “네.”

자오화성은 다시 긴장을 풀고 하얀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리치 소장님은 도대체 누구랑 대화한 걸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만큼 소장님의 행동 패턴이 변했어. 소장님은 분명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 그래서 백지 한 장을 통해 무언가를 암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러한 일들이 그 미스터리한 자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자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단으로 리치 소장님을 협박한 건 아닐까?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미스터리한 자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생명과 환경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았어. 거기서 나오면 배불러서 죽게 될 거라고 했어. 그런데 리치 소장님은 그자가 외부 환경에서 죽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던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나온 건가?

어쩌면 이미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자가 리치 소장님의 행동을 방해한 건 아닐까? 참, 리치 소장님은 태양 위기가 머지않아 발발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 미스터리한 자와는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자 때문에 소장님이 태양 위기를 알게 된 것일까? 그렇다면 그자는 또 어떻게 이 사실을 안 거지?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태양 위기가 발발하기 전에 이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 설마 그 미스터리한 자는 인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 걸까? 그렇다면 그자는 정체가 뭐지? 외계인? 아니면 시간 여행자 같은 것일까?

만약 외계인이라면, 그자가 태양에 나타난 다이슨 스피어 같은 물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이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 냈을지도 몰라. 그 외계인도 그들 집단의 일원인 거지. 그런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리에서 낙오된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리치 소장님을 만나게 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이 태양 주위에 다이슨 스피어 같은 물체를 만들어 놓은 건 무엇 때문일까? 우주에 항성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 태양을 선택했을까?

우리 인류 문명은 줄곧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랜 시간 탐색해 왔지만, 여태껏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에 외계인이 침입했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낮았다. 그런데, 그런데….

자오화성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뒤죽박죽 뒤엉키면서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흰색 천장, 투명한 액체가 가득 담긴 링거, 옆에 있는 리웨이, 창가 쪽에 서 있는 명취 등 자오화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순간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머릿속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소리를 질렀다. 눈앞이 컴컴해지더니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자오화성이 다시 깬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유백색 전등 불빛이 여전히 창가에 서 있는 명취의 모습과 수심이 가득한 리웨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가 자오화성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이 들긴 했지만 자오화성은 여전히 머리가 지끈거리며 쭈셔 왔다.

의사는 자오화성의 고통을 알고 있는 듯했다. “뇌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현재 이미 신경쇠약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거예요.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의 반응이죠. 마음을 편하게 갖고 생각을 멈춰 보세요. 그럼 통증은 사라질 겁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려 든다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자오화성 씨의 뇌가 이런 손상을 피하고자 더는 사고하지 못하도록 통증으로써 막는 겁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이 아주 무거운 것 같네요. 맡은 책임이 막중할수록 더욱 건강을 챙겨야죠. 자오화성 씨가 쓰러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돌려 리웨이를 쳐다봤다. “당분간 환자를 잘 보살펴 주세요. 한 달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리웨이가 의사에게 인사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자, 리웨이는 자오화성을 위로하려고 옆으로 다가왔다. “당분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요. 너무 걱정 마요. 관촬을 거예요. 과연부와 심리연구팀 모두가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열쇠는 저에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인류에게 닥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저밖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리웨이 씨, 다들 저와 같은 인간이에요. 저처럼 다른 이들도 희로애락을 갖고 살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모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재난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죽게 돼요. 우리 문명도 붕괴되겠죠. 우리가 이 지구에 남겨 놓은 흔적들과 수많은 역사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오화성이 힘없이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화성 씨 건강이…” 리웨이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데, 멩쥐가 중간에 말을 끊었다.

“자오화성 씨.” 멩쥐가 말했다. “얘기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오화성이 대답했다.

“심리 전문가팀의 소견에 따르면, 자오화성 씨의 현재 건강 상태로 다시 일에 집중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 말대로 계속 이렇게 무리한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자오화성은 쓴웃음을 지었다.

“심리 전문가팀은 잠시 일을 중단하고 바람 좀 쐬러 갔다 올 것을 권했습니다. 마음 좀 가라앉히고 안정을 취하고 나서 업무에 복귀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분간 자오화성 씨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이번 일과 관련한 정보는 어떠한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오화성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자오화성은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뜬눈을 들어더니 말했다. “먼저 북극으로 가죠. 북극에 가보고 싶네요.”

“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멩쥐는 리웨이를 향해 냉담하게 말했다. “리웨이 씨만큼 리치 소장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자오화성 씨와 함께 지냈으면 합니다. 자오화성 씨가 리웨이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언제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연구원에는 제가 얘기해 놓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부탁 같았지만, 어떻게 들어도 이걸 명령이었다.

“그렇게요.” 리웨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튿날 새벽 멩쥐는 여전히 기력 없어 보이는 자오화성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멩쥐와 자오화성은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태우자마자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리웨이를 데리고 어느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이미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북극 장산 과학 기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북방시 코위스 마을에 들러 5일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산 과학 기지에서 3일간 체류할 예정입니다. 3일 후 우리는 과학 기지 연구원들과 함께 북극에서 철수할 겁니다. 물론 자오화성 씨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가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멩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자오화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그런데 철수라고 하셨습니까? 과학 기지 연구원들이 북극에서 철수하나요?”

“그렇습니다. 북극은 이미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멩쥐가 말했다. “지금은 북극권의 여름입니다. 빙설이 녹는 계절이죠. 그런데 어제 장산 과학 기지 연구원들이 사상 최저 기온을 측정했습니다. 영하 93도라고 합니다. 정부 자원을 적도 사업에 쏟고 있어, 특수한 생존 물자를 북극 과학 기지로 보내는 데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구원들을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한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철수한 이후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계속해서 북극을 지킬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로봇이 고장 나게 된다면 더는 어쩔 수 없겠죠.”

헬리콥터가 굉음 속에서 이륙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어느 산골짜기에 착륙했다. 이곳에서 자오화성은 대형 제트 여객기로 다시 갈아탔다. 멩쥐와 리웨이, 그리고 의사와 안전보장팀을 포함해 약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북방으로 향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자오화성 일행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코위스 마을은 온통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었다. 그러나 자오화성에게 이러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숙소로 들어가 씻지도 않은 채 깊이 잠이 들었다.

코위스 마을에는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자오화성 일행은 몇 사람씩 나뉘어 현지 주민 집에서 묵게 되었다. 자오화성이 머물게 된 곳은 마을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집이었다. 이곳에는 노부부와 그들의 딸, 그리고 외손녀가 함께 살았다. 외손녀는 7살밖에 안 된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코위스 마을에 오랫동안 외지 손님이 없어서였는지 마을 사람들은 자오화성 일행을 따듯하게 맞아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 손님을 환영해 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술과 음식을 잔뜩 가져오자 맛있는 냄새가 금방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자오화성은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깬다. 현재 북극은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 코위스 마을도 밤이 매우 짧았다. 해 떨어지고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날이 다시 밝았다. 시계를 봤더니 벌써 아침 8시였다. 자오화성은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이 따뜻해서 추위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가 쌓였던 지라 자오화성은 어젯밤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았다.

방 밖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꼬마 여자아이 목소리였다. “엄마, 아저씨 깨워도 돼?”

한 젊은 여자 목소리도 들렸다. “프레이야, 아저씨는 환자란다. 아저씨 자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아저씨한테 빨리 선물 주고 싶단 말이야.” 여자아이가 말했다.

“우선 아침 먹을 준비하렴. 좀 있으면 아저씨 일어날 거야.”

그때 자오화성이 방문을 열자 얘기 중이던 모녀가 보였다. 자오화성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프레이야, 안녕?”

“아저씨, 일어났어요?” 프레이야가 신이 나 달려왔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프레이야 손에는 고무찰흙으로 빚은 순록이 들려 있었다. 사실 솜씨가 그리 좋은 않았다. 색깔 배합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순록보다는 시커먼 당나귀 같았다.

프레이야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발끝을 세우고는 자오화성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보여줬다. 프레이야 엄마는 민망해하면서도 자오화성에게 말했다. “화성 씨, 이거 프레이야가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만든 거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오화성은 몹시 기뻐하며 선물을 건네받았다. 요리조리 자세히 보면서 감탄했다. “프레이야, 이거 정말 프레이야가 만든 거야? 아저씨한테 주는 거니? 정말 예쁘구나. 마음에 쏙 들어.”

프레이야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선물을 자오화성이 좋아하는 걸 보고 만족스럽단 표정을 지었다. 마치 “아저씨가 좋아할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아저씨도 프레이야한테 선물 줄게.” 자오화성은 프레이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주머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프레이야 목에 걸어 주었다.

“너무 예뻐! 아저씨, 안아줘요.” 프레이야가 두 팔을 벌리자, 자오화성이 프레이야를 번쩍 들어 안아 주었다.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부부는 프레이야 엄마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웃었다.

다들 담소를 나누며 식탁에 모였다. 그저 아침 식사였는데도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특별한 요리들이 자오화성의 식욕을 자극했다. 자오화성은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싶을 때까지 먹었다.

“이따 점심에 마을에서 손님들 환영한다고 오찬을 마련할 예정인데, 자오화성 씨도 시간 되면 오세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프레이야 엄마가 자오화성에게 말했다.

자오화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어디 멀리서 오신 거예요?” 프레이야 엄마가 물었다.

“네, 아주 멀리서요.” 자오화성이 말했다. “희망시에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오는 데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아저씨, 희망시는 어디에 있어요?” 프레이야가 물었다.

“희망시는 여기서 남쪽에 있단다. 인류 연맹의 수도가 있는 곳이지. 그곳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 자오화성이 프레이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마을 방송으로 들었는데, 연맹 정부가 수도를 적도시로 이전할 거래요. 또 거기서 적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여기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적도시로 떠났어요.

이제 이곳에는 노인들 몇몇밖에 안 남았어요.” 프레이야 엄마가 또 말했다.

“그런데 프레이야네는 왜 적도시로 안 가지죠? 거기도 꽤 살기 좋은데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프레이야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께서 가고 싶지 않아 하시니, 제가 여기서 두 분을 모셔야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어찌 된 일인지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요. 아직 여름인데도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어요. 어망을 치려면 멀리까지 갔다 와야 하고요.”

“아저씨,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아저씨는 알아요?” 프레이야가 말했다. “엄마가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해요.”

자오화성은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태양 할아버지가 쉬고 있어서 그렇단다. 태양 할아버지가 다 쉬고 나면, 날씨가 다시 따뜻해질 거야.”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프레이야 엄마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물고기도 잘 안 잡혀요.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 우리도 적도시로 떠나야겠죠.”

자오화성은 프레이야 엄마의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다. “여기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적도시는 반대로 기후가 매우 온화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 거기 가도 사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도 모르죠.” 프레이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사, 출발하자구나.” 밖에서 남자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프레이야 엄마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자오화성에게 말했다. “자오화성 씨, 우리 좀 나갔다 올게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면 교회로 가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면 재밌을 거예요.”

“어디들 가시나요?” 자오화성이 물었다.

“어망 걸으러 가요. 어제 쳐 봤으니, 오늘 가면 아마 수확이 좀 있을 거예요. 고기 잡고 와서 점심에 맛있는 생선찜 해 드릴게요.” 프레이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프레이야는 비비카 아줌마네 집에 가서 존이랑 놀고 있으렴. 엄마 금방 올 거야.”

“엄마, 개 썰매 타고 갈 거야?” 프레이야가 물었다.

“그럼.”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개 썰매를 타고 간다고 하자, 프레이야는 신이 나기 시작했다. 프레이야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허락했다.

프레이야 엄마는 방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는 옷을 단단히 껴입은 프레이야를 안고 집을 나섰다. 자오화성도 따라 나갔다. 문 앞에는 이미 썰매가 대기하고 있었고, 썰매 개 일고여덟 마리가 헉헉대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노부부는 벌써 썰매에 타 있었다. 프레이야 엄마도 프레이야를 안고서 썰매에 올라탔다. 프레이야는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려 자오화성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물고기 잡아 와서 맛있는 거 해 주세요.”

“그래. 프레이야, 고마워.” 자오화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프레이야 엄마에게 말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알겠어요. 금방 올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으세요.” 프레이야 엄마도 자오화성에게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가 “출발!”이라고 외치자, 썰매 개들이 곧바로 썰매를 끌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졌다.

자오화성은 방에 들어가 두꺼운 방한복을 입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이곳은 마치 무릉도원과 같았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순수함이 느껴졌다. 말도 참 따뜻하게 했다. 자오화성은 어느덧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명취와 의료 및 안정보장팀도 모두 와 있었다. 교회 마당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엄숙하던 명취까지 나서서 일손을 도왔다. 자오화성이 온 걸 보고 리웨이가 가볍게 눈인사를 했다. 자오화성도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가가 함께 일을 도왔다.

시간이 훌쩍 지나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하늘이 어느새 어두워지더니 잠시 뒤에는 눈발도 날리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는구먼.” 한 노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날씨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군그래.”

자오화성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노인에게 말했다. “프레이야네 가족이 어망 걸으러 갔거든요. 날씨가 이런데 괜찮을까요?”

노인이 물었다. “간지 얼마나 됐나?”

“한 세 시간 정도 됐어요.” 자오화성이 시계를 보며 답했다.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에게 말했다. “엔스, 프레이야네 좀 찾아봐야겠네. 어째서 여태 안 오는지 알아보게나.”

엔스라는 중년 남자가 대답을 하고 바로 움직였다. 노인이 자오화성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프레이야네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노련한 어부라네.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밖이 추우니, 우선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겠네.”

자오화성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다. 결국 또 교회 입구로 나왔다. 눈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았다. 찬 바람도 같이 불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자오화성은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시 노인 앞으로 와 말했다. “눈발은 더 세지고 있는데, 프레이야네 가족은 아직 소식이 없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봐 걱정됩니다. 우리가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노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찾으러 가지.”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자, 사람들이 노인 앞에 모여들었다. 노인이 몇 가지를 지시하자, 사람들이 각자 흩어졌다. 잠시 뒤 각자 집에서 썰매와 자동차를 가져왔다.

“멀리서 오신 손님 여러분, 우리는 프레이야네 가족을 찾으러 갔다 와야 합니다. 금방 올 테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노인이 말했다.

명쥐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어르신, 저희 모두 신체 건장한 젊은이들인데 뒤로 숨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자오화성 씨는 환자라 추위를 견디기 힘들 테니, 자오화성 씨만 여기 있게 하겠습니다.”

자오화성이 바로 앞으로 나와 반발했다. “싫습니다. 다 같이 가야죠.”

명쥐가 자오화성을 힐끗 쳐다봤다. 명쥐는 자오화성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주민 중에 신체가 허약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원이 총동원되었다. 썰매 개가 짊는 소리와 자동차의 요란한 엔진소리가 한데 섞여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노인은 프레이야네 가족이 이동한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중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곧장 달렸다.

눈은 더 세계 내렸다. 바람도 조금 전과는 다르게 매섭게 몰아쳤다. 방한복도 최대한 두꺼운 것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오화성은 여전히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추위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눈앞에는 빙설로 하얗게 뒤덮인 세계만 보일 뿐이었다. 폭설 때문에 불과 20m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자오화성은 더욱 걱정됐다. 마치 한기가 마음속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만약 프레이야네 가족이 눈바람 속에서 방향을 잃었으면 어떡하지?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을 사용해 프레이야네를 불렀다. 하지만 눈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다.